

《Z의 스마트폰》이란 책이 참고가 될 거야. Z세대의 개인 소유주인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소통하고, 학습하고, 창조하는지 분석한 책이거든.

다만, 다른 세대를 공부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 M이든 Z든 세대를 거론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꾸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사람은 예전과 똑같아. 환경이 달라졌을 뿐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예를 들어 자기표현의 욕구나 더 저렴하게 소비하고 싶은 바람, 색다른 걸 해보고 싶은 욕망은 예전에도 있었어. 다만 그것들이 디지털과 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해진 것뿐이야. 그러니 기계적으로 M세대나 Z세대라 설정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심리와 욕구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해.

말 나온 김에, 교육이라는 건 뭘까? 학습한다는 게 한마디로 뭘까?

나는 ‘용어’를 배우는 거라고 봐.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교수하다가 한국에 8년 만에 돌아왔어. 그사이에 한 번도 한국에 안 왔던 거지. 귀국 후에 충청도에 사시는 작은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갔거든. 공손하게 절하고 나니까 “오냐, 수고 많았구나. 그래, 미국 가서 뭘 공부했냐”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네, 마케팅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케팅이 도대체 뭐냐?” 물으셔. 갑자기 쉽게 말씀드리려니 어렵더군. “저기… 물건 광고하고요. 그걸 어떻게 팔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참 망설이시다가 “그런 걸 공부하려고 미국까지 갔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지 더 막연하더라, 하하.

미국의 대학원에 유학 가려면 GRE나 GMAT 시험을 봐야 하잖아. 그런 시험의 절반은 산수야. 공식을 대입해 풀어야 하는 수학은 아니고, 논리력과 추리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나머지 절반은 뭘까? 영어 시험. 절반은 이해력 테스트고, 절반은 순수한 단어 시험이야. 미국에 박사 공부하러 가는 사람에게 단어 시험을 봐. 왜 그럴 것 같아?